

민주당 3대 국책사업 전방위 조사

“과학벨트 등 입지 결정 되레 지역균형발전 훼손”

당차원 진상조사·국정조사 추진...정보공개 청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국책사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한국도도주 택공사(LH) 등 3대 국책 사업 입지 결정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차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손학규 대표가 과학벨트 입지선정,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LH 일괄이전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 위 구성안을 만들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입지를 발표했다고 유아무야 넘어가면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당 진상조사위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기로 지역균형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배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LH 이전 및 과학벨트 결정에 이르는 모든 심사자료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지역갈등 유발 및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여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 조사위 인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한나라당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선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상당해 의외로 쉽게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이번 주에 당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야당에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여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불공정 의혹

을 제기하며 지난 16일부터 5일간 한의단식을 해온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 요구해온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자 20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지방안정성과 재해안전성을 점수화하지 않고 적·부 평가로 심사한 점, 그리고 당초 100만평으로 제시했던 부지규모를 50만평으로 축소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호남권유치위는 이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는 위법적이며, 불공정한 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에 공들이는 손학규

과학벨트 조사 수용... 목포·무안 들러 지역 민심 달래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한데 이어 21일에는 목포와 무안지역을 방문했다.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3일만에 광주·전남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손 대표 핵심 측근은 22일 “손 대표가 과학벨트 유치 문제와 관련, ‘정부 또한 지난 20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당내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국책사업을 검증하겠다

는 것이 명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총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에 대한 협박을 보이고 있는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손 대표 측은 과학벨트 유치를 둘러싸고 불리한 관계를 보였던 광주시와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다.

손 대표 핵심 측근은 22일 “손 대표가 과학벨트 유치 문제와 관련, ‘정부 또한 지난 20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당내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국책사업을 검증하겠다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손 대표의 행보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확실히 확보해야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칫, 광주·전남 민심이 흔들릴 경우, 손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의 지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광주·전남 민심은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 대표가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서거 후 2년... 야권지형이 변했다

‘통합 정치’ 성과 지역구도 완화 대권후보 지지엔 친노세력 갈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23일) 후 2년 동안 야권의 지형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통합의 정치’ 화두는 분열돼 있던 야권 진영의 연대·통합 움직임을 재촉했고 연대의



아직도 과잉충성?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경찰기동본부를 방문했을 때 전·의경 대원들을 주처장에 도열시켜 과잉충성이라는 논쟁을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내무반을 둘러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며 주처장에 도열한 전·의경 대원들을 보고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왔지 사열하러 온 것이 아니냐며 도열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경찰기동본부 방문했을 때 전·의경 대원들을 주처장에 도열시켜 과잉충성이라는 논쟁을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내무반을 둘러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며 주처장에 도열한 전·의경 대원들을 보고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왔지 사열하러 온 것이 아니냐며 도열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위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몇 차례의 재보선을 거치며 지역구도 완화라는 성과물로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전면적 연대 실험에 힘입어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으며 그 결과로 불모지로 여겨지던 영남과 강원도 교두보를 구축하는 등 호남 중심의 기존 지역기반을 넓히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정당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4·27 분당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 지렛대로 중간층 흡수를 통한 의원 확대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만 구축하면 총선 과반의 확보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은 야권에 통합과 연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던져줬다.

지리멸렬했던 야권의 차기 대권구도도 서서히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22일 현재로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약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투표 체제’가 구축한 상황이다. 또 친노 좌장적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방론도 꿈에 대고 있다. 지난 2년은 친노 세력에 제기의 기간이었다. 6·2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친노 핵심인사들을 진출시키며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참여당 창당으로 분열되면서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또 차기 대선에 나설 대표후보를 놓고도 친노 내부가 손 대표, 유 대표, 문 전 실장 지지파로 흩어진 양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소영 비리 5남매” 리콜 시키겠다

민주당,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별러

이번 주 5·6 개각에 따른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한나라당 행사에 불법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완 내정자가 한나라당의 대학생 정치 참여 프로그램 행사인 ‘campus-Q’의 강사로 2011년 1월20일 강의를 하면서 발생한 총 889만5000원의 행사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고용보험 기금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10년 청년 고용 홍보 예산 3억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홍보대행사 RAINBOW가 1월20일 박재완 장관 강의 행사 종료 후인 1월 31일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에 대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2010년 예산이 이월되지도 않았음에도 2011년 1월에 집행하는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에 필요한 경비를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 예산을 쓰듯 돈처럼 쓴 것”이라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라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135조를 위반한 횡령”이라고 맹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 등을 수행했고, 선거일 90일 전에 그만뒀어야 할 사정직을 유지한 채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비리 5남매” 전원을 ‘리콜’하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그날 통과된다면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리콜시

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실패한 MB노믹스를 밀어붙였다는 오기 인사이며, 노동현우증에 걸린 이재철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발탁은 노동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자신이 만든 직불금제를 교묘히 이용, 나라 간간을 축냈다”며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정실인사의 표본이며, 권도연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은 권력 입맛대로 소신을 바꾼 해바라기 인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삼질인사”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당 대표 첫 봉하마을 찾아

황우여 원내, 故노무현 전대통령 묘역 참배

대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2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권한대행이긴 하나 한나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봉하재단 김경수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분향소에서 헌화를 한 뒤 고인이 잠들어있는 ‘너럭바위’ 앞 추모대에서 묵념을 했다.

그는 이어 예정에 없이 고인의 사저로 권양숙 여사를 예방, 약 30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면담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봉하 사저를 ‘초호화관’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곳은 절반만 대통령 생활공간이고 나머지는 경호동의 일부인데 아방궁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1 재광 진도군 향우회 정기총회

○ 일 시
2011년 5월 28일 15:30 - 20:00

○ 장 소
방림초등학교 체육관

○ 대 상
400명 (내빈, 향우회원, 초청가수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진도군립 예술단 공연 (복춤, 남도민요)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만찬(현직장소부패)
 - 공연 (연예인 초청 : 박진도)
 - 품바타령
 - 읍·면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 폐 회

○ 추진위원 ○

- 재광 진도군 향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 수석 부회장 한찬권 010-7156-4363
-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 진도읍 향우회장 김복남 011-9603-9270
- 고군면 향우회장 한진욱 011-9667-8041
- 군내면 향우회장 박상진 017- 605-5549
- 의신면 향우회장 박상열 010-2409-1548
- 임회면 향우회장 광복일 011-2616-8846
- 지산면 향우회장 최정규 010-3468-7741
- 조도면 향우회장 김재호 011- 609-1779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1. 전부명령의 위험(확정판결,어음공증)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4. 무담보채무의 월리금이 5%에 가까운 경우
5. 자녀가 성인(만20세)에 가까운 경우

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법인사업자) 법인회생 특별상담해드립니다
(단, 고의적인 채무발생과 재산은닉등은 시기회생 및 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회 법률사무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